나를 비추는 다양한 거울과의 만남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외의 《이런, 이게 바로 나야!(전2권)》를 읽고

박성원 | 소설가

김동광 옮김
사이언스북스/A5신/450면 내외/각 12,000원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면서도 왜 모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처럼 진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유효한 것일까. 왜 모든 '나'들은 서로 다른 '나'일까? 이 책은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고, 반대로 모든 낯선 것들을 지극히 자명한 것으로 뒤바꾸고 있다."

흔히 《삼국지》를 두고 세월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고 한다. 십대에 읽은 《삼국지》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은 뒤 읽는 《삼국지》의 맛이 다르다는 것이다. 뭐 따지고 들다보면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삼국지》뿐이겠는가. 어릴 적 듣던 팝송이나 동요도 십수 년이 흐른 뒤 우연히 듣게 되면 우리를 괜한 상념에 잠기게 만들고, 또 가난의 냄새가 아직도 떠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가 머릿속을 온통 복대기 치며 일어서기도 한다.

시간이 바꿔놓은 '나와 너'의 모습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은하철도 999〉에 대한 애정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은하철도 999호가 정차하던 우주 마을과 그곳의 마을 주민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마냥 질투만 하는 사람들만 사는 별, 또는 모든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사는 별 등 인간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문명과 자아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우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철이의 마지막 종착지는 기계 인간—지금으로 말하면 '몸철학'으로 비유될 수 있는—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빠른 생산과 침공보다 수비에만 열중하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술자리에선 언제나 타인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친구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어지러운 수상전과 오버로드를 이용한 공습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때로는 전위적이다가도, 보수적인 친구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모두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면서도 왜 모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처럼 진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유효한 것일까. 왜 모든 '나'들은 서로 다른 '나'일까?

브레히트는 관객들이 극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 극중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감정이입을 막고자 했다. 이런 거리화 기법을 통해 브레히트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버렸다. 반면 난해하기로 소문난 라캉은 기괴한 것을 친숙하게 만들었다.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된 '나'의 철학

《이런, 이게 바로 나야!(전2권)》(사이언스북스)를 엮은 호프스태터와 데닛은 "독자들을 뒤흔들고 혼란시켜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고, 반대로 모든 낯선 것들을 지극히 자명한 것으로 뒤바꾸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어쩌면 지은이들은 브레히트부터 라캉 시대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관통하는 철학의 문제를 펼쳐보이고 싶어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낯선 친숙함을, 그리고 익숙한 낯섦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 책에는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유명한 남미 소설가 보르헤스부터 미국의 수학 교수인 루디 러커까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는 '나'에 대한 문제를 인문적 사고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와 과학 전반에 이르기까지 심화·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때문인지 과학자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문제는 새롭고 이채롭다. 이제 '나'에 관한 진지한 물음은 컴퓨터나 인공 지능, 유전 공학의 문제와도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진보해서 철학의 자리가 물러서고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철학의 방향은 이미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알려고 들수록 헤매는 것이 '나'에 대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어쩌겠는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덤벼드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물음인 것을. 브레히트나 라캉,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열아홉 명의 저자는 모두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우주 마을의 주민이거나, 주민을 관찰하는 연구자다. 물론 나도 그렇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